

청소년 연구의 동향 : 2010년~2018년의 '청소년학연구'지를 중심으로

장신재¹, 이원지^{2*}

¹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²장안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The Trends of Youth Researc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in 2010-2018

Cin-Jae Chang¹, Won-Jie Lee^{2*}

¹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Jangsin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Janga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2010년부터 2018년 동안 청소년학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의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관련 연구의 지식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논문의 초록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활용하여 NetMiner 프로그램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의 중심성(Centrality)분석 및 응집성(Cohesion)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결 정도 중심성 분석에서 '관계'가 가장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와 청소년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부모, 폭력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도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 학교, 필요, 교육, 부모, 아동, 학대/정서(같은 수준), 기관, 지역, 휴대폰/예방/복지(같은 수준), 초등, 애착, 자살, 중독, 사회, 폭력, 자녀, 봉사, 지원/정책/재학/교사(같은 수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집성 분석 결과, 학교생활과 정책, 중독, 부모 & 또래 관계, 시민 교육 & 복지 지원, 정서와 사고, 대학, 학대 & 자살로 총7개의 하위 주제로 구분되었다.

주제어 : 청소년, 연구동향, 키워드 네트워크분석, 청소년 복지, 넷 마이너

Abstract This paper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knowledge structure of youth-related research by looking at the research trend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from 2010 to 2018. Using keywords extracted from the papers, the Centrality and Cohesion analysis of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of the NetMiner program were used. In the analysis of degree centrality, the "relationship" was the highest, followed by schools and youth, and high in the order of parents and violence. In the analysis of betweenness centrality, the "relationship" was also the highest, followed by youth, school, need, education, parents, children, abuse/emotion(the same level), institutions, regions, cell phones/prevention/welfare(the same level), elementary, attachment, suicide, addiction, society, violence, children, services, support, policy/teachers(the same level). According to the cohesion analysis, school life and policy, addiction, parent & peer relations, civic education & welfare support, sentiment and thinking, college, abuse & suicide were divided into a total of seven sub-topic subjects.

Key Words : Youth, Trend Analysis, Keyword Network Analysis, Youth Welfare, NetMiner

*Corresponding Author : Won-Jie Lee(wonjie98@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18,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November 8,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다른 생애 주기의 연령 집단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청소년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설득력이 있는 요인으로는 투표권의 부재로 인한 시민권 행사의 제한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대학 진학에만 집중된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에 속한다[1-3]. 이러한 문제적 환경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그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4]. 또한, 청소년을 둘러싸고 교육학, 사회복지학 및 심리학 등의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의 문제에 국한된 경향이 있고, 그들의 삶은 나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많은 연구들을 정리해보는 것은 청소년을 둘러싼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탐색하고 향후 청소년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유용한 시도가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그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1998년 이용교의 청소년복지에 대한 동향연구를 시작으로, 2016년 김혜경, 최중진의 청소년학 질적연구 동향분석 두 편 수행된 것이 전부이다[5-6]. 그동안의 동향연구에서는 청소년에 관련된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동향을 살펴보거나, 연구 주제 및 연구 대상별로 분류하여 연구의 빈도를 살펴보는 데 그쳤다. 그 외에 청소년 회복탄력성[7-8], 청소년 집단프로그램[9-10], 진로 관련 연구[11-12], 인터넷 이용 관련 연구[13], 그리고 탈북 청소년이나 장애 청소년 등에 대한 소수의 연구들[14-15]이 대략적인 동향 연구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청소년 관련 연구들은 단편적인 영향 요인들을 다루는 데 주로 집중된 경향이 있고 청소년에 대한 연구 전체를 조망

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청소년 연구를 정리해보고, 재조망하여 그 흐름과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위한 자료분석방법으로 넷마이너 기법을 활용하였다¹⁾. 근래에 들어 학문의 지식구조를 규명해내고자 하는 주된 경향으로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 분석은 네트워크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응집성, 중심성, 하위 클러스터 등 다양한 분석지표를 시각화한다[7]. 이 분석방법은 경영학, 교육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으나[7, 16-18] 이에 반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매우 일천한 수준이다[19]. 최근에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에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소년'을 키워드로 연구동향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넷마이너의 연구들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연결 빈도 및 연구의 확장성을 파악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9년간 발간된 청소년학회지에 게재된 청소년 관련 학술논문 총 1,52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자가 제시한 4,119개의 키워드를 투입하였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청소년 관련 국내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조망함으로써 이제까지 수행되어 왔던 청소년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청소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 각 연구들의 키워드를 통해 연구의 맥락, 관계성 등을 분석하고, 중심성, 응집성, 클러스터 등을 도형으로 제시하여 다양한 지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학연구'에 실린 논문의 초록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넷마이너(NetMiner) 프로그램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최근에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활용한 KoNLP와 tm패키지 등의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 동향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분석하는 언어 네트워크

1) 이 방법은 기존 연구들의 키워드를 투입하여 키워드 네트워크의 중심성, 응집성을 도출해낸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그 맥락과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탁월한 통계 기법이다.

분석과 시각화와 네트워크의 특성을 함께 파악하기에 유용한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넷마이너 프로그램은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해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여러 다른 단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그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 양상, 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를 제공한다 [20]. 이 분석법을 활용하여 그동안 청소년 관련 연구들에서 집중한 키워드 및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에 관련된 연구들의 연관성과 사회 현상 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3.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KISS(한국학술정보)에서 '청소년'으로 검색한 국내 학술지 가운데 '청소년학연구'의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총 1,527편의 학술지에서 총 4,119개의 키워드를 수집하였다. 발행연도로 살펴보면, 2018년(169편), 2017년(198편), 2016년(240편), 2015년(210편), 2014년(211편), 2013년(148편), 2012년(163편), 2011년(177편), 2010년(132편)이 연구되었다. 이 연구지는 상담, 복지 및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학술지로서 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데이터 수집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총 1,5648편의 논문 가운데 초록이 없는 논문을 제외하고 총 1,527편의 논문에서 4,119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키워드 가운데 유사어, 동의어, 제외어 등을 필터링하여 제외하였고, 2-mode 매트릭스를 1-mode 매트릭스로 키워드 동시 출현 매트릭스로 변환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70회(빈출 상위 5%)이상 등장한 키워드들만을 추출하였고, 링크값(Cosine Similarity)이 0.25이상인 링크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출된 데이터에서 최종적으로 네트워크 중심성(Centrality)분석과 응집성(Cohesion)분석을 실시하였다2).

2) 중심성(Centrality) 분석은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는 노드(node)와 그 노드와 직접 연결된 다른 노드들과의 연결(edge)정도를 측정하여 각각의 노드들이 네트워크에 얼마나 중심에 위치하여 의미를 창출하는 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기법이다. 중심성 분석 가운데 연결 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분석은 네트워크상에서 가장 높은 출현빈도(degree)의 노드를 파악하여 그 의미와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분석은 다

4. 연구결과

4.1 네트워크 중심성(Centrality) 분석 결과

'청소년'을 키워드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결 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다음의 Table 1와 같다.

Table 1. Network Centrality of Youth Research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1	relationship	0.054140	1	relationship	0.036018
2	school	0.031847	2	youth	0.032492
	youth		3	school	0.021396
3	parents	0.019108	4	need	0.018070
4	violence	0.015924	5	education	0.017480
5	student	0.012739	6	parents	0.011932
	damage		7	child	0.009978
	career		8	abuse	0.008323
	region			emotion	
	preparation		9	institution	0.008242
	emotion		10	region	0.008136
	child		11	cell phone	0.005067
	society			prevention	
	university student			welfare	
	education		12	elementary	0.004429
6	emotion	0.009554	13	attachment	0.003480
	efficacy		14	suicide	0.003439
	academic studies		15	addiction	0.003419
	learning		16	society	0.003405
	elementary		17	violence	0.002640
	school year		18	children	0.002564
	need		19	service	0.002503
	elementary		20	support	0.001730
	next year			policy	
	support			in school	
middle school	teacher				

연결 정도 중심성 분석에서 '관계'가 가장 중심성이 높은 단어로 나타났고, 학교와 청소년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부모, 폭력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생, 피해, 진로, 지역, 준비, 정서, 아동, 사회, 대학생, 교육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휴대폰, 효능감, 학업, 학습, 학대, 학년, 필요, 초등, 차년, 지원, 중학교가 그 뒤를 이었다. 이 단어들이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에서 높은 빈도로 연구된 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네트워크와 가교적인 연결을 하는 매개 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연결 정도 중심성과 동일한 결과로 '관계'라는 단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 학교, 필요, 교육, 부모, 아동, 학대/정서-기관, 지역, 휴대폰/예방

른 네트워크와 허브(Hub) 역할을 수행하는 노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복지-초등, 애착, 자살, 중독, 사회, 폭력, 자녀, 봉사, 지원/정책/재학/교사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두 중심성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노출 빈도가 높은 단어는 관계, 청소년, 학교로 나타났고, 부모, 폭력, 정서, 아동, 휴대폰, 학대 등이 노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역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 중심성은 통계 분석에서 독립변수나 종속변수가 될 수 있다[21]는 점에서 청소년에게 학교에서의 '관계'는 청소년 관련 연구에서 높은 중요도로 연구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관계'에서 파생된 학교에서의 교우 관계, 교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에게 갖는 중요도를 가늠하게 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에 관련된 연구, 휴대폰 중독 및 학대 문제가 높은 중요도로 연구되어 왔다.

4.2. 네트워크 응집성(Cohesion) 분석

네트워크의 응집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성분(giant component)을 추출하여 커뮤니티(community)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연구는 서로 유사한 키워드끼리 묶여진 7가지 하위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모듈성(modularity)값이 13.872로 기준인 3.5보다 높게 나타났다. 7가지 하위 주제로 나뉜 전체 커뮤니티는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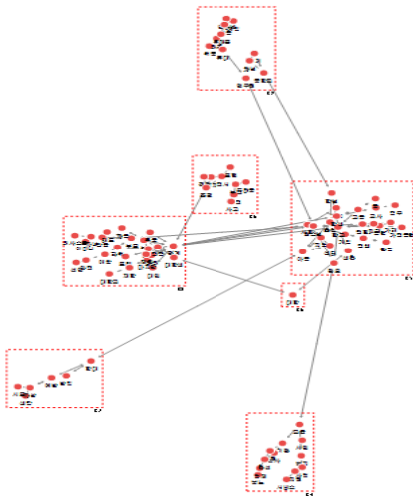


Fig. 1. Seven Groups of the Youth Research

청소년에 관련된 연구의 하위 연구주제는 Table 2에서와 같이 학교생활과 정책, 중독, 부모 & 또래 관계, 시민 교육 & 복지 지원, 정서와 사고, 대학, 학대 & 자살로 구분할 수 있다.

Table 2. Seven Groups of the Youth Research

Group	Keywords
Group1 School Life and Policy	schools, students, elementary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teachers, violence, experience, abuse, schools, interventions, policies, regions, children, centers, etc.
Group2 Addiction	Internet, games, cell phones, addiction, dependency.
Group3 Parent & Peer Relationship	parent, child, parenting attitude, communic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eer attachment, stability, adult, depression
Group4 Citizen Education & welfare support	education, civic, welfare, volunteer work, business, service
Group5 Emotions and Accidents	cognition, emotion, expression, fear, affirmation, negation, thinking
Group6 University	university
Group7 Abuse & Suicide	abuse, neglect, prevention, suicide, thought, attempt

Fig. 2의 [Group1]에서는 학교, 학생 및 청소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초등학생, 고등학생, 교사, 폭력, 경험, 가해, 학교, 개입, 정책, 지역, 아동, 센터 등과 같이 청소년의 학교 생활과 정책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났다. 이 때, 폭력이라는 키워드가 초등학교, 경험, 피해, 가해, 가정폭력과 근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났다. 학교 폭력 피해 경험과 횡수가 초등학교에게 가장 많고[22-23], 연령, 가족관계 및 학교생활 등이 학교 폭력에 영향을 주는 연구[24-25]등을 살펴볼 때, 분석 결과의 키워드가 폭력을 둘러싼 영향 요인의 키워드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즉, 청소년의 학교 및 가정 폭력에 관련되어 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키워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초등학교생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청소년의 생활적 필요에 따른 정책적 개입으로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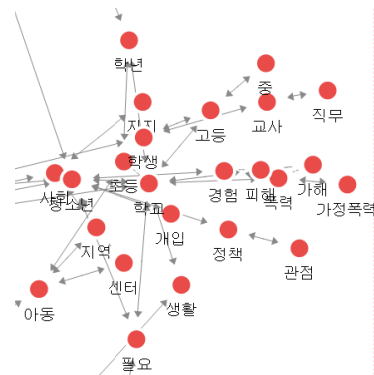


Fig. 2. "Group 1" of the Youth Research

Fig. 3의 [Group2]에서는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인터넷, 게임, 휴대폰, 중독, 의존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났다. 이때 중학교와 연결되어 위의 키워드들이 연결되어 나타난 것을 볼 때, 중학교 때부터 온라인 매체에 노출되어 의존하게 됨으로써 중독에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통계[26]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은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고연령일수록 인터넷이용률이 높아졌으나, 스마트폰 과의존은 중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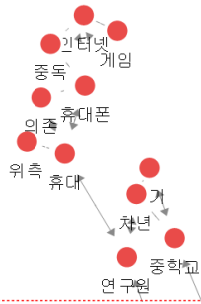


Fig. 3. "Group 2" of the Youth Research

Fig. 4의 [Group3]에서는 관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 양육 태도, 의사소통, 대인 관계, 또래 애착, 안정, 성인, 우울 등의 단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결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 의사소통 관계, 애착관계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관계에서 파생된 연구 주제가 부모의 양육태도, 대학생의 재학, 애착 관계, 우울 등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타인과의 관계가 성인기의 애착관계 및 정서·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생애주기이론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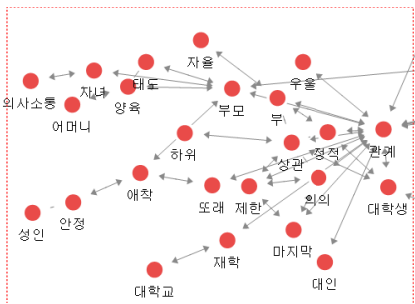


Fig. 4. "Group 3" of the Youth Research

Fig. 5의 [Group4]에서는 교육, 시민, 복지, 자원봉사, 사업, 서비스 등 시민교육과 복지지원에 관련된 키워드와 연결되어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민교육과 봉사 활동을 강조하는 청소년 정책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청소년 대상의 교육적 차원으로 시민, 복지, 사업에 관련된 영역과 자원봉사 활성화 영역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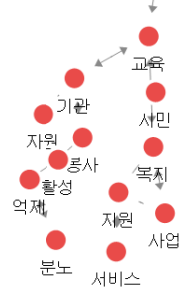


Fig. 5. "Group 4" of the Youth Research

Fig. 6의 [Group5]에서는 인지, 정서, 표현, 두려움, 긍정, 부정, 사고 등의 단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정서적 부분이 두려움이 가장 크지만, 긍정적 사고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기의 정서적 기능이 인지전략과 함께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정서조절에 관련된 연구들[27-30]을 뒷받침하는 분석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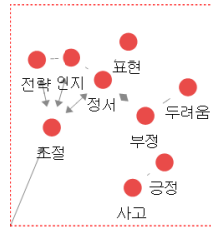


Fig. 6. "Group 5" of the Youth Research

Fig. 7의 [Group6]에서는 대학이라는 키워드만 발견되었다. 대학은 Group1(학교생활과 정책)과 Group3(부모 & 또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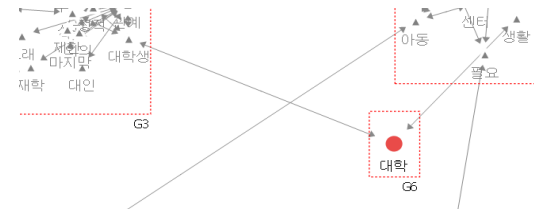


Fig. 7. "Group 6" of the Youth Research

Fig. 8의 [Group7]에서는 학대, 방임, 예방, 자살, 생각, 시도와 같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관련된 문제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연결되어 나타났다. 이때, 예방이라는 키워드가 학대와 자살문제에 연결되어 있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연구들[31-34]이 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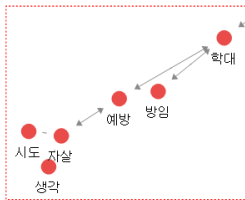


Fig. 8. "Group 7" of the Youth Research

5.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분야의 연구동향을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존의 소규모 청소년 동향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최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학연구' 논문 전체를 살펴보았고, 이는 청소년 연구를 광범위하게 개괄해보고자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 기간 동안의 청소년 연구는 학교생활, 청소년 문제 등의 제한된 주제에서 청소년의 생활, 문제, 학교, 진로, 제도 및 정책, 심리·정서, 사회관계, 서비스, 문화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밀도 깊게 확장되어왔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인 키워드는 관계, 학교, 청소년, 부모, 폭력 등이었다.

둘째, 응집성 분석을 통해 살펴본 청소년 연구의 연구 주제들은 정책과 서비스 차원의 주제로 학교생활과 정책, 시민교육과 복지지원에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또한 인지·심리·정서 차원에서의 연구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수행되었는데, 또래와 부모관계, 정서와 사고 그리고 중독, 학대와 자살 같은 청소년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가장 일반적인 진로로 인식된 대학과 관련된 주제가 또한 중요한 연구주제였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자본주의 경쟁체제가 우리 사회에서 내면화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심리·정서 문제가 매우 다양하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청소년들이 새로운 장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복지사회의 토대 마련을 위한 시스템의 재구축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는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관계, 정서와 관련된 문제중심적 키워드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문화, 다양성, 교류, 능력, 세계, 이해, 배려 등과 관련된 연구로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은 입시를 위주모한 교육정책이 그 핵심을 이루어 왔으나, 학령인구와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기존의 정책기조를 고수할 수는 없다.

넷째, 분석결과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구조적 공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경험'이라는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이것은 드러내지 않은 잠재적 의미의 중요성, 긍정적인 방향성 등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왜곡되어 왔던 청소년 문제, 교육, 환경들을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향후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로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은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회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지위 때문에 사회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였다. 이를 반영하듯이 본 연구를 통한 청소년 연구의 주요 키워드에서도 사회에 비치는 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차원들을 담아내기에는 임의적이고, 몇 가지 주제에 편중된 측면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발전적인 다양한 연구 주제로 확장함과 동시에 다른 영역과 함께 융복합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OECD. (2015). *Children well being*.
- [2] J. H. Jang. (2018). A Study on Effects of Environmental Features of Adolescents on Subjective Well-being -Focused on Busa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2), 351-364.
- [3] J. H. Shim & K. H. Yi. (2018).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he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Focusing on gender and academic characteristic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4(1), 199-225
- [4]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 *The*

Sixth Youth Policy Basic Plan(2018-2022)

- [5] Y. G. Lee. (1999). A Study on Policy of Alternative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Youth Welfare*, 1(1), 61-74.
- [6] H. K. Kim & J. J. Choi. (2016). The Trends of Qualitative Research in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From 1994 to 2014.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3), 365-392.
- [7] S. H. Hong, K. H. Jo, H. J. Lee, S. K. Son, H. J. Kim, M. R. Yoon & Y. K. Kang. (2019). Research trends in adolescent resilience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30(2), 273-301.
- [8] G. R. Park & J. J. Choi. (2016).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Youth Resilience : Targeting on the published papers in domestic journals (1998-2015).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0), 451-478.
- [9] G. R. Park & D. Y. Shin. (2018). The structure and content analysis of youth Resilience improvement program: focusing on the articles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1999-2016).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4), 199-224.
- [10] Y. R. Kim, S. H. Yoo & J. Y. An. (2018). Research trends in group programs for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9(3), 71-99.
- [11] H. R. Kim, S. R. Yoo & E. Y. Son. (2017). Trend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on Career - from 2010 to 2016 focus on the Korean Domestic Journal.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0(3), 173-191.
- [12] J. E. Jung, H. S. Joo & C. Y. Jung. (2013). A Review of Research i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1), 1-20.
- [13] M. J. Kang, E. K. Shin & S. A. Kim. (2015). Analyses of Research Tre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age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of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2), 95-144.
- [14] H. S. Yoon. (2014). Research Trend and Priority Subject of Research on North Korean Migrant Youth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1), 125-149.
- [15] S. H. Yoon, J. Y. Kim & S. M. Shin. (2018). The Effects of Group Program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 A Meta-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5(4), 583-602.
- [16] M. J. Kim & W. H. Jang. (2018). Research Trends of Continuity between Preschool and Elementary Education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2(3), 351-377.
- [17] H. S. Oh & D. H. Lee. (2018).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5(4), 823-838.
- [18] D. R. Kim, G. S. Kwon & S. B. Jung. (2015). Knowledge Structure Analysis on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Journal of Decision Science*, 23(1), 111-125
- [19] W. J. Lee. (2018). Recent Research Trend Analysis of Elderly Welfare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Korean Aging Friendly Industry Association*, 10(2), 31-40
- [20] H. S. Choe & C. Y. Ock. (2002).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Korean Semantic Network. *Korean Linguistic*, 17, 301-329.
- [21] Y. H. Kim. (2003). *Social Network Analysis*. Parkyongsa.
- [22] M. S. Yoon & H. J. Jo. (2008). Effects of Violence Experience Type on Adolescent's Depression, Alcohol Use, *Mental Health & Social Work*, 29, 295-329.
- [23] Y. K. Song, Y. H. Kim & S. S. Hwang. (2011). Effects from the Interaction of Ego - Resilience, Social Supports in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 1-19.
- [24] J. O. Kim & G. G. Park. (2002).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Family Violence and Adolescents' Violence in the School. *Journal of Family Relations*, 7(1), 93-115.
- [25] H. E. Chung & J. S. Chun. (2012). Risk Factors of Adolescents' Victimization by School Viol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1), 195-212.
- [26] Statistics Korea. (2018). *2019 Statistics on the Youth*.
- [27] T. Y. Han. (2005). Adolescents' Stress at School: Moderation Effects of Persona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2), 177-197.
- [28] S. H. Han & O. K. Hyun. (2006). Relationships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to Cognitive Reappraisal and Expressive Suppression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nd Self-Control i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6), 1-11.
- [29] H. W. Kim & I. S. Oh. (2016).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 betwee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4(1), 151-171.
- [30] T. H. Kwak & J. H. Lim. (2019). The Effects of Emotional Awarenes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s Mediat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40(2), 13-24.
- [31] J. H. Jang & H. J. Shin. (2003). The Effect of a Protection Program for Adolescent Excessive Use of Interne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4), 651-672.
- [32] S. H. Jee, M. S. Kim, S. G. Oh, E. Y. Kim & S. S. Lee. (2008). *Adolescent Suicide Prevention Program and Interventive Measures*. Seoul.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33] H. J. Kim. (2008). Effect Factors of Adolescents' Suicide ris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7, 69-93.
- [34] S. K. Hwang, J. Y. Park, H. J. Lee & J. A. Son. (2016). The Development of Suicide Prevention Model for the Adolescent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ung University*, 32(4), 305-330.

장 신 재(Cin-Jae Chang)

[정회원]



- 1990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7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3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3년 9월 ~ 현재 :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빈곤 가족, 공공복지, 삶의 질
- E-Mail : jangsin@sjs.ac.kr

이 원 지(Won-Jie Lee)

[정회원]



- 2002년 8월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2005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6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장안대학교 사

회복지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사회자본, 노인빈곤, 노인건강증진 및 요양예방
- E-Mail : wonjie98@jangan.ac.kr